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기니	강교현	화 10am
	ACA	김행자	금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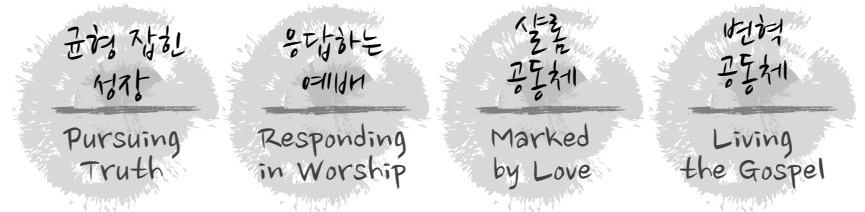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12/31	1/7	1/14	1/14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신년 점심식사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박미현,곽은영 /심미진,김남순	신년 점심식사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주차 봉사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변상윤/Tom Flynn
예배 안내	ACA/나진/기니 (12월) & 암만/시리아 (1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명 - 진리 추구 Pursuing Truth

본문: 요한복음 18:28-40
설교: 매트 미칼라토스

요한복음 18장 28-40절

- (28절)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 (29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 (30절)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 (31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십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32절)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 (35절)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 (37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 (38절)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 (39절) 유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 (40절)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요. 바라바를 놓아주소"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란 과연 무엇입니까? 빌리지의 사명 선언문에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인간의 타락은 거짓말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말씀(예수님), 기록된 말씀(성경),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3. 우리는 진리에 헌신한 공동체입니다.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7년을 마치며

지난 한해동안 여러 모양을 통해 서로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통로가 되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2. 송구영신예배 (12/31)

오늘 저녁 11시에 빌리지 한인부 송구영신예배로 모입니다.

- 일시: 12월 31일 (주일) 11pm
- 장소: Chapel

3.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1/2-13)

2018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2018년이라는 새로운 챕터를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으로 시작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로 초청 드립니다.

- 일시: 1월 2-13일 @ 평일 5:30am, 토요일 6am
- 장소: 대예배당 (평일), 음악실 (토요일)

4.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반 (1/6-27, 매주 토요일)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2017년 하반기 동안 빌리지 한인부에 새롭게 정착하신 지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8년 1월 6-27일, 토요일, 4주간 @ 6:30-8:30pm
- 장소: Willamette A & C
- 문의: 조희정 자매

5. 신년 첫주 주일예배 (1/7)

다음 주일 한인 헬로우십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신년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6. 침례식 (1/28)

침례신청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규진 목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은 1월 28일 주일예배에서 있으며, 3주간의 침례교육이 있습니다.

- 신청: 1월 6일까지

7. 2018 한인부 주소록

2018 빌리지 한인부 주소록 샘플이 나왔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헬로우십 테이블에서 내용을 최종 확인해주시고, 테이블에 배치된 용지나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최종 업데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kf@vbconline.org).

8. 날마다 솟는 샘물 (1월호)

1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가족, 친척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받는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 그 가정에 화해와 조화와 그리스도의 사랑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2) 공정하고 공평한 세금 계획을 마무리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정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선출된 공직자들간에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길 기도해 주십시오.

2. 봄맞이 아동 뮤지컬 : 보물섬

1-5학년 어린이들이 만드는 봄맞이 뮤지컬 보물섬이 내년 4월 중순 무대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1월13일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7-8:15pm) Fellowship Hall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1월 6일 저녁 7시 벽난로방에서 부모님을 위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sarahm@vbconline.org 또는 michellecmoxley@gmail.com)

3. 중등부 안내

중등부 모임은 1월 6/7일까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겨울철 일기 경보

겨울철 예상치 못한 날씨에 대한 최신 정보를 Flash Alert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lashalert.net/news.html?id=126>

Or www.vbconline.org

5. 중고등부 블레이저 경기 관람 (1/5(금), 5-10:30pm)

중고등부에서 1월 5일 Moda Center에서 열리는 블레이저 경기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당일 오후 5시에 Sunset Transit Center에 모여 출발할 예정이며, 블레이저 팬 최고의 의상 참가자를 위한 상이 마련됩니다. 참가비는 \$15이며, 경기, Max 티켓, 상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www.goo.gl/4WprxS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빌리지 토의: 반-성매매 운동 (1/28(주일), 4:30-7pm @ Chapel)

이번 빌리지 토의에서는 연간 15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이 된 성매매 이슈에 대해 알아보고, 이 문제에 관해 빌리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빌리지의 반-성매매 팀과 EPIK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Justin Euteneier, WorldVenture의 전세계 인신 매매 방지 담당 이사인 Adrienne Livingston 및 Multnomah 카운티 검찰청 폭력 범죄 대원 사무실 지방 법무 차관인 BJ Park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7. 여성부 수련회 - 사랑하기와 사랑받기 (2/9(금) -11(주일) @ Cannon Beach)

올해 여성부 수련회에서는 강사 Pauline Fong과 함께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온 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 받았으며, 나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참가비는 \$190입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에리트레아(Eritrea)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교: 이슬람교(56%) 에리트레아정교(25%)
- 인구: 5,482,000명, 기독교인 2,741,000명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박해순위 10위
- 수도: 아스마라(Asmara)
- 주 박해요소: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이슬람의 압박(Islamic oppression), 종파 보호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에리트레아(Eritrea)는 박해 지수 82점으로 2017년 세계 박해 순위(World Watch List, WWL) 10위를 기록했다. 지난 해 기록은 박해 지수 89점에 박해 순위 3위였다. 에리트레아의 폭력 순위는 2017년 WWL 집계 기간 50% 이상 줄어들었는데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은 심각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아페웨르키(Isaias Afewerki, 현 에리트레아 대통령) 정권과 집권당 민주 정의 인민 전선(People's Front for Democracy and Justice, PFDJ)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 박해 지수가 작년 대비 7점 하락했다는 점에서 기독교 박해 순위가 지난 집계 기간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6년 집계 기간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에리트레아에서 탈출을 시도하던 도중 살해되었다.

박해원인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에리트레아는 1993년 국민 투표가 실시된 이후 독립 국가가 되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아페웨르키(Isaias Afewerki)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 정의 인민 전선(People's Front for Democracy and Justice, PFDJ)'이 에리트레아 전역을 통치하고 있다. 아페웨르키 정권은 '절대적인 독재'의 동의어로 여겨질 정도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서방 국가의 첩자이며 국가와 정부에게 위협적인 존재라 판단하여 그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살해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에게 직위를 물려주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이슬람의 압박(Islamic oppression): 에리트레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무슬림이다. 이들은 대부분 홍해 해안가의 저지대, 그리고 수단(Sudan)과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적 분위기에 휩쓸려 이슬람 극단주의로 치우칠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들은 매우 취약한 입장일 수 밖에 없으며,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다. 에리트레아 무슬림들은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을 '에리트레아' 보다 더 우선시한다. 기독교로 개종하는 행위는 사회와 가족 그리고 이슬람 신앙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 에리트레아 정교회는 자국 내에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정교회는 때때로 다른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압력을 가한다. 이러한 압력은 단지 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조직화된 체계를 자랑하는 정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앞잡아 보는 경향이 있다. 정교회 지도자들은 에리트레아를 정교회의 고향으로, 또한 정교회의 역사가 곧 에리트레아 기독교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기타 모든 교회, 특히 오순절 교회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박해배경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는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지수, 그 밖에 여러 인권 지표에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한다. 에리트레아 정권은 절대적인 독재 정권으로 모든 형식의 반대 의견과 의사 표현, 그리고 등기되지 않은 조직 구성 등을 일체 불허한다. 에리트레아 국경 내에 안전한 곳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억압을 견디다 못해 에리트레아에서 탈출하는 것이 정부에게는 도리어 잘된 일이다. 피난길을 선택한 이들이 어찌 보면 정부에게 변화와 개선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 무리이기 때문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견(Reporters Without Borders, RSF)의 201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에리트레아 국적의 기자들은 법정에서 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감옥에 무기한 수감되어 있다. “에리트레아는 의사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체계적으로 박탈한다. 이 나라는 기자들에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감옥이나 다름없다.” 에리트레아 대통령은 RSF가 작성한 언론 자유 약탈자(Predators of Press Freedom) 명단에 올라가 있다. 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언론 자유 지수(Press Freedom Index)에서 에리트레아는 8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말리아, 수단, 중국 그리고 이란보다 언론 자유 지수가 나빴던 것이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공식 허가를 받은 종교에 한해서 종교활동을 허락하고 있는데, 이슬람교 수니파, 에리트레아 정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루터 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다른 교회들은 국내 활동이 매우 어려우며 박해의 최전방에 놓여 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부의 적대감은 1993년 국민 투표 기간 ‘여호와의 증인’을 겨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형식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자리잡았다. 정부가 도입한 등기 시스템은 에리트레아의 기독교 인구 대다수를 ‘불법’의 범주로 몰아넣었다. 모든 종교 기관을 통제하려던 정부의 시도는 2007년에 장기간 자택에 감금되어 있던 에리트레아 정교회 교주의 직분을 박탈함으로써 절정에 달했다.

정부의 학대를 비롯한 온갖 고난으로 인해 국민들은 불만을 품게 되었다. 2013년에는 가벼운 수준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지만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정부는 이를 서방 국가와 에티오피아의 탓으로 돌렸고, 이를 구실 삼아 이들이 서방 국가의 첩자라고 부르는 기독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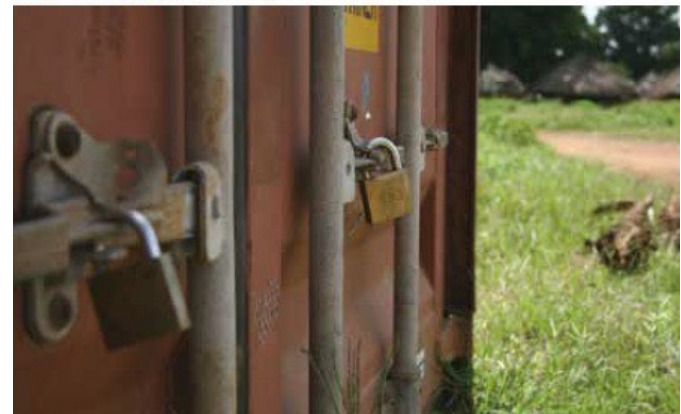
들에 대한 박해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슬림들은 ‘당신의 적은 곧 우리의 적’을 내세워 정부와 보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한편 에리트레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지하디스트 (Jihadist, 이슬람 성전(聖戰)주의자)를 양산하여 ‘아프리카의 뿔(The Horn of Africa, 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을 지칭)’ 전역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줄곧 질타를 받아왔다. 유엔은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집단(특히 알샤바브(al-Shabaab))에 지원을 제공하는 에리트레아 정부에 대해 제재조치를 선언했다. 이는 에리트레아 정부가 지하디스트 과격분자들에게 박해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 박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수단의 이슬람 정권과도 긴밀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을 끝없는 시련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카타르,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와 문화적, 정치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단,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인근 국가를 통해 에리트레아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들은 인신매매자들에게 손쉬운 표적이 되며 특히 시나이(Sinai) 사막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일부는 IS에게 붙잡혀서 리비아에서 참수를 당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다. 이처럼 에리트레아의 박해 상황은 전 세계 난민 위기에도 일조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16년 2월 29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한 에리트레아를 ‘특별우려국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 CPC)’으로 재 지정했다. 지난 해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 의장 로버트 P 조지(Robert P. George)와 USCIRF 위원 토마스 J 리(Thomas J. Reese)는 “에리트레아의 인권 범죄 및 종교의 자유 관련 범죄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에리트레아는 ‘국제 형사 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기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엔 에리트레아 인권 조사 위원회 역시 에리트레아 정권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인권 조사 위원회가 에리트레아 국민의 협조를 받아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 그리스도인이 갇힌 컨테이너 감옥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개인영역:** 에리트레아 정부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교회의 소유물로 등록되지 않은 모든 물품과 자료들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매우 위험하다. 소유물의 주인을 체포하거나 기독교 관련 자료들을 불법소유물로 간주한다. 교권주의(Denominational protectionism)와 이슬람 탄압 (Islamic oppression)은 여러모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 특히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개종자들은 흔히 가족들로부터 쫓겨나가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본 혜택들을 누리지 못한다.

***가족영역:** 기독교인들의 가정생활은 위협에 처해 있다. 정부당국의 체포, 수감, 납치 등으로 인해 기독교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다. 몇몇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떠날 수 밖에 없다. 교권주의로 인해 몇몇 기독교인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써의 권리뿐 아니라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슬람 탄압은 무슬림들이 우세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다 방면에 걸쳐 자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슬림배경신자(MBBs)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적 결혼 예식을 올릴 수 없으며, 사망 시 무슬림 예식에 따라 매장된



다.

***지역사회영역:** 정부는 모든 기독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한다.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동맹 단체가 등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무슬림 지역의 주민들은 정부기관을 대신해 모든 종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병역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독교인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

***국가 영역:** 에리트레아를 빗대어 ‘아프리카의 북한’으로 언급한 것과 미 국무부에 의해 ‘특별우려국’ (CPC: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영역에서 박해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가로부터 공인 받은 종교 단체만이 에리트레아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2007년 발생했던 것과 같이 에리트레아 정교회의 대주교를 임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를 직위에서 파면하고

***교회영역:** 에리트레아의 종교 단체들은 법률에 의해 등록되거나 활동을 중단해야만 한다. 하지만 갈수록 등록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선출하는데 개입하기도 한다. 일례로, 2007년 5월부터 에리트레아 정부는 정교회 총주교 아부네 안토니오스(Abune Antonios)를 가택연금에 처했다. 더군다나 종교 단체들은 국가 종교국의 사전 허가 없이 종교물을 인쇄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폭력:** 비록 올해 폭력 점수가 보고기간 동안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많은 에리트레아 의 기독교인들이 자국에 머무는 대신 수단과 리비아를 거치는 이동 경로를 따라 위험천만한 이주를 강행 하고 있다. 보고기간 동안 적어도 3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2016년 2월 23일 메 트르(Maitre) 감옥에 수감 중인 기독교인 남성 2명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28세 여성이 감염으로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찌는듯한 열기가 느껴지는 운송용 컨테이너라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정부에 의해 억류돼 있다.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수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11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채 생활하고 있다. 수도 아스마라(Asmara) 경찰서에는 새 신자들을 포함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억류 돼 있다. 이 수감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훼농장에서 장 시간 동안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수감자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들은 최소 10년 이상 억류 돼 있다. 그 중에는 2004년 체포된 에리트레아 순복음교회 지도자도 있으며, 남서부 지방의 순복음 교회 설립자이자 목회자, 마사와 레마 교회(Massawa Rhema Church)의 목사, 정교회 사제들도 포함돼 있다. 또한 2005년 사라진 순복음교회 목회자 역시 감옥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2007년 가택연금에 처한 에리트레아 정교회 대주교도 있다.

결론적 요약

에리트레아는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해온 나라로 가난과 안보가 주요 이슈에 포함되어 있다. 에티오피아와 수단, 케냐와 그 외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 난민 수는 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권과 개인생활 상태에 대단히 불만이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외교 정책과 원조에 관해서는 현 정부는 중국, 이란, 걸프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며, 기독교 단체를 포함한 서방 비 정부 단체의 개방에 대한 압력에는 저항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인권은 계속해서 유린 당하고, 사회 통합에 있어 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독교와 이슬람 분파는 탄압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유엔 (UN)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에리트레아는 법이 아닌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어둠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